티모르 조르날!!

10월호

아띠클라세:

동티모르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10월의 고백'

한국에는 가을이 찾아온다는데…

동티모르팀 센터 주변 이야기

딜리팀의 소소한 일상 밀착 르뽀오

안녕커피:

커피사업 불친절한 그들의 현장 이야기

드디어 터졌다! 뭐가!?

-고백: 지금 떠나도 후회는 없다…?

부록 : 티모르 갤러리

간략하게 살펴본 동티모르의 10월

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 -음악수업 -Atti Klase 홍보 -쓰레기 줍기 -장보기	2 -재량수업 -정전으로 라멜라우 호텔로 피신 -팥빙수의 감동 -축구부와 공놀이 -쓰레기 줍기	3 -음악수업 -한국어교실 첫 수업 -Same에서 아저씨들 오심	4 -미술수업2 -쓰레기 줍기 -장보기	5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단체 염색 -우기시작?? 그리고 정전 -렉시오 시작 -쓰레기 줍기	6 -T.P에서 Wifi
7 -9월 보고서 만듦 -회충약 꿀꺽!	8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9 -STAFF 회의 -애큐메니컬 수업 참여 -9월 보고서 만듦	10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STAFF과 함께 센터 근처 바닷가 감 -9월 보고서 완성	11 -떼뚬어수업 -미술수업3 (청소년들 첫 참여) -9월보고서 전송	12 -컨테이너도착 (여수 후원물품과 함께) -라멜라우 호텔에서 운동	13 -T.P에서 Wifi -Arte Moris 구경 -베또시장 구경 -내기 렉시오
14 -'End Poverty' 캠페인 회의 -아닌 밤중에 정전	15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2012년 커피 수출기념 회식	16 -떼뚬어수업 -애큐메니컬 수업 참여 -'End Poverty' 캠페인 회의 -커피 아저씨들 Same로 가심	17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18 -미술수업4 -박람회 관람 -쓰레기 줍기	19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여수 후원물품 처음으로 나눠줌 -방 원래대로 옮김	20 -센터 외벽 페인트칠
21 -센터 내벽 페인트칠	22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End Poverty' 캠페인 보고서 작성	23 -애큐메니컬 수업 참여 -깊은 얘기 나눔	24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라멜라우 호텔에서 운동	25 -미술수업 -한국어수업 2차 홍보	26 -오전 수업만 진행 (그림그리기)	27 -T.P에서 Wifi 및 장보기
28 -Teize 기도 -'End Poverty' 캠페인 보고서 1차 전송	29 -음악수업 -한국어수업	30 -길고 긴 연휴 시작 (~11/4) -'End Poverty' 캠페인 보고서 2차 전송 -망고 냠냠냠! -라멜라우 호텔에서 운동	31 -딜리에 있는 큰 시장 감 (망고 사재기) -벽에 쓸 글씨 파는 작업 -여자 방에 에어컨 물받이 만듦			

Atti Klase – Muzika Klase

(아띠 끌라쎄 – 음악 수업)

동티모르에 오기 전에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막연하게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후 동화 간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센터에 리코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대충 리코더 악보 몇 개만 가져가면 되겠지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딜리에 와서 직접 수업을 해보니 정말 안일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긴 했지만 첫 음악 수업에는 밖에서 놀고 있던 3명의 아이들과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과 내 생각대로 진도가 나가겠다는 기대 말입니다. 그렇지만 리코더라는 다소 생소한 악기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점점 수업에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리코더가 모자란 수업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가는 만큼 고민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리코더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차근차근 진도를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다 나간 후에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도보다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 주는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점점 조급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가 갈수록 늘어나 팀원들이 힘드냐고 물어볼 정도가 됐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이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것 일까?'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욕심으로 혼자 답답해 했고 그래서 표정도 좋지 않고 내 표정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코더를 접하는 아이들의 시각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또한 내가 동티모르에 오기전의 마음가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이곳에 음악을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왔다' 이 말을 마음에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 후로는 수업시간에 웃으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좀 더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리코더 구멍을 꽉 막으라는 저의 말에 손끝에 구멍자국이 생기도록 꼭 막는 아이들의 모습, 수업시간에 알려준 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완성 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 글쓴이 : Natalia

Atti Klase – Arte Klase

(아띠 끌라쎄 – 미술 수업)

미술수업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어 '교육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미술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다양한 미술표현을 주제로 계획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현재 5회기까지 진행되었다. 1학기에는 Afonso의 종이 접기 교실과 Dona의 그림 교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Gomez의 만들기 교실과 Dona의 그림 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1회기 여는 마당은 Dona 담당이었지만 배탈로 Afonso가 진행하여 자기얼굴 그리기 및 자기소개를 진행하여 교실 친구들의 이름과 나이를 소개받았다.

다음 쪽에서 계속...

-2회기에서는 스크래치 기법을 통한 마을 그리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때부터 미술수업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4회기는 모자이크기법으로 자유 그림을 그렸다. 쓰레기 줍기를 하다가 발견한 신문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작품들이다.

센터의 아이들은 때로 찾아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매우 잘 그린다.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 초등학생 때 기억을 되 집어보고, 여러 샘플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즐겁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림교실의 목표는 아이들이 친구들 그림이 모방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 글쓴이 : Dona

Atti Klase – Lian Koreia Klase
(아띠 끌라쎄 – 한국어 수업)

이곳에서 내가 맡고 있는 수업은 한국어.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한국어 수업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원래는 태권도 과학교실을 진행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티모르에 도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띠 끌라쎄를 열기 전 스텝들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 결과 다른 수업들 보다 스텝들과 총장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국어교실을 열게 되었다. 원래 태권도 교실을 하려고 했던 시간에 한국어수업을 넣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교실을 열기 전 마운 줄리오에게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해보겠다고 자신 있게 맡았다.

처음에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다. 스텝들이 한국어 교실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고, 아띠 끌라쎄 홍보를 마치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즐거운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다. 홍보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도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아니 딱 한 명이 왔었다. 단 세 번 수업을 받고 떠났을 뿐.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센터의 스텝 4명 남짓밖에 없었다. 그 수업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수업이 늦어지는 날에는 한국어 수업도 늦어 지고 스텝들이 바깥일을 보러 나가거나 바빠 보이는 날에는 수업을 종종 빼먹기도 했다. 오후 수업은 아예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음 쪽에서 계속...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오지 않는 학생들을 기다리며 교실 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한국어 교실이 열리는 시간에 학생들은 없고 그냥 센터를 놀러 오는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위해 준비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휩싸였다. 해보기도 전에 해도 안 될 거야, 해도 똑같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로 인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며 지난 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점점 커져갔다.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서 무언가 함께 해주지 않은 팀원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었다.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는 내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변명일 수도 있었겠지만 더위와 활동과 아이들에 지쳐 피곤해 보이는 팀원들의 얼굴을 보니 선뜻 함께 홍보를 하자고 말할 수 없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탓일까? 조금 더 믿었다면 변화는 빨리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포기해 버리고 싶었던 걸까? 홍보를 하고 싶어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가방 속에 처박혀 구겨지고만 있었다.

한국어 수업 홍보를 발단으로 팀 내에서 진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원인은 모두에게 있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또한 그만큼 함께 하는 활동인데 신경 쓰지 못했던 팀원들에게도. 하지만 큰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동료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함께하는 내가 무언가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을까?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지레짐작을 하곤 먼저 함께하자고 하지 않는 친구들을 원망하고 있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졌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다음 쪽에서 계속...

이제는 괜찮다. 긴긴 대화를 통해 나는 함께 하는 사람을 좀 더 믿기로 했다. 발단은 한국어 수업이었지만 이를 통해 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네 사람이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한 때 존폐 위기에 놓인 한국어 수업이었지만 우리는 한국어 교실을 계속 열기로 결정했다. 아띠 끌라쎄를 연지 6주 그 동안 2차 홍보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었지만 소극적인 탓이었을까? 고작 두 분이 한국어 교실을 찾아 주셨다. 회의를 통해 아예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에 다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홍보를 열심히 했던 덕분일까? 이제 드디어 학생들이 찾아올 시간이 온 것일까? 오늘은 한 명도 없던 한국어 수업에 사람들이 일곱 명이나 찾아와서 수업을 들었다.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한국어 수업 진행의 바통은 호진이에게 건내어 주기로 했다. 아띠 끌라쎄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 호진이가 한국어 수업 진행을 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새로 여는 과학 수업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 역할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남은 시간 과학 수업도, 한국어 수업도 팀원들과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번 일들을 통해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는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함께 하는 아띠들을 더 믿고, 남은 3개월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 글쓴이 : Gomez

Atti Klase – Afonso
(아띠 끌라쎄 – Afonso 담당)

저는 아띠 끌라쎄에서 재량활동과 종이접기 수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띠 끌라쎄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주진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과 함께 진행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량 활동은 Gomez와 함께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과학, 환경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진행하는 애큐 메니컬 수업과도 연계하는 활동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초 스태프 회의를 통해 재량활동을 없애고 그 시간에 축구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은 매 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축구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수업은 매주 목요일에 있는 미술 수업 안에서 3주에 한 번씩 종이접기를 이용한 미술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 주 미술 수업의 30분씩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알려주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미술 수업이 각주의 주제마다 필요한 시간이 각기 달라서 미술 수 업을 맡은 Dona와 상의한 끝에 3주에 한 번씩 미술 수업이 이루어지는 2시간 동안 종이접기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진행자로써 수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기만 하면 유달리 표정이 굳고 아이들에게 쉽게 화를 낸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여 유가 없어서인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한 어 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표정 역시 굳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만 하기에는 힘이 달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어느 날은 팀원들이 제가 가르치기 힘들어 했던 아이들을 저보다 훨씬 수월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제 옆에는 팀원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버거울 때나 힘들 때,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각자 혼자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라온아띠'라는 한 '팀'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마음에 여유를 조금씩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쪽은 가르치고 다른 한 쪽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강박관념 없이 다같이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글쓴이 : Afonso

우리의 캠페인은 끝나지 않았다.

동티모르에서도 라온아띠가 파견된 마을 곳곳, 한국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End Poverty campaign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서 귀국 전 캠프 당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난다. 동티모르에 대한 정보, 우리가 살아갈 곳에 대한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 때. 우리 팀은 거리 캠페인, 말라리아 예방법, 텃밭 가꾸는 방법, 동티모르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빈곤퇴치 캠페인 하기 등을 구상하고 발표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정말 말 그대로 이곳을 몰랐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으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방안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만난 동티모르는 많이 달랐다. 우선 동티모르는 치안이 몹~시 좋지 않고,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곳이었다.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인데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은 언감생심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 캠페인 등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텃밭은 한 번도 안 가꿔본 우리들보다 이곳 마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셨다. 이곳에서는 많은 집이 빈 공간에 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직접 내다팔기도 한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 빈곤퇴치 캠페인 진행하기는 왠지 불가능해 보였다.

다음 쪽에서 계속...

캠페인을 준비하기 전 스텝들과의 회의를 통해 라온아띠의 프로그램인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캠페인의 방법, 이곳에서 살아가는 스텝들과 각자가 생각하는 빈곤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다. 나중엔 이 부분에서 더 자주 많이 스텝들과 이야기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동티모르 YMCA 전체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한 달 남짓 생활하며 과연 동티모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이곳에서 본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눈병, 감기 같은 잦은 질병, 아무데서나 뒹굴고 있는 쓰레기, 미크롤렛과 같이 오래된 자동차 때문에 발생되는 대기오염 등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느낀 문제점을 우리의 활동, 캠페인에 어떻게 녹일까 하고 고민했다.

동티모르 아띠들은 우리스타일 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캠페인은 End Poverty campaign기간에 실시하기로 했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두 번씩 지속적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쪽에서 계속...

End Poverty campaign 기간에 첫 번째로 다뤄보기로 정한 주제는 보건과 위생 교육이었다. 센터에 찾아오는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있거나 눈병에 걸려 눈곱이 심하게 끼어있었다. 쓰레기와 먼지가 많아 주변환경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사실 손 씻기만 잘 해주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에 초점을 맞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총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대본을 준비하고 현지언어인 떼뚬어로 번역을 하고 스텝들에게 감수를 부탁했다. 캠페인 진행 도움을 받기 위해 스텝에게 보조 교사 역할을 부탁하고, 연극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캠페인에 필요한 준비물 을 만들고 소품들을 준비했다. 캠페인에 많은 아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는 주간 내내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홍보를 했다.

캠페인 당일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해 캠페인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을 꾸미고 준비물을 체크했다. 스텝과 함께 연극최종 리허설 시간을 가졌다. 약간 긴장된 마음 속에 캠페인 시간이 다가왔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고 계속 이야기 했던 덕분인지 센터에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다. 캠페인은 오전과 오후 총 두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음 쪽에서 계속...

드디어 준비했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약간은 긴장된 마음속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둘씩 보여줬다. 우리가 항상 수업을 진행하던 교실이었지만 캠페인이라는 활동을 진행하니 조금 긴장이 됐다. 준비했던 순서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손 씻기와 관련된 연극, 세균의 이동경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교육, 손 씻기 실습, 마지막으로 손을 깨끗이 씻자는 약속으로 자기 손을 예쁘게 그려보고 약속하는 문구를 넣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떼뚬어로 진행을 하려니 곤욕이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귀를 기울여 집중해 주는 모습을 보니 캠페인 도중에도 힘이 불끈불끈 솟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시간은 손 씻기 실습 시간이었다. 손 씻기 실습이 끝나고 다 쓴 물을 하수구에 버리는데 물 색깔이 흙탕물 색이었다. 그만큼 아이들의 손이 더러웠다는 말이다. 리코더 구멍에 때가 끼고 미술수업을 하려는데 종이가 더러워지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만큼 손이 깨끗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뻤다. 캠페인이 끝나고 함께 캠페인을 참여해 준 친구들에게 여수 YMCA에서 후원을 받은 노트와 볼펜을 하나씩 나눠줬다.

별 문제 없이 캠페인이 잘 끝났다. 준비과정에서 아띠들이 몇 날 몇 일간 정말 고생이 많았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캠페인은 아직 남아있으니깐 아쉬운 점을 더 보완해서 다음 캠페인 때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또한 다음 캠페인 때는 함께하는 스텝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좀 더 동티모르에 맞는 캠페인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다음 쪽에서 계속...

캠페인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우리의 End Poverty 캠페인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센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손을 씻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렇게 한 아이라도 더 손을 잘 씻게 되어서 눈병이나 감기에 조금 덜 걸리게 되면 그 때가 진정 손 씻기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아닐까? 캠페인이 끝나고 3주가 지났다. 우리는 항상 수업이 시작 되기 전 아이들을 이끌고 화장실로 데려가 함께 손을 씻는다. 이제는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손 씻기 방법대로 손을 씻는 아이 들을 보면 괜스레 흐뭇해 진다.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은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더 이어나갈 생각이다. 센터와 주변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동티모르를 좀 더 되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End Poverty와 관련된 동티모르와 밀접한 주제가 무엇일지 생각 해 보고 캠페인을 진행 할 것이다. 앞으로 다룰 주제는 크게 쓰레기, 대기오염, 지구시민 교육이다. 지금까지는 라온아띠들끼리만 이야기를 했는데, 스텝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좀 더 동티모르에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볼 계획이다.

- 글쓴이 : Gomez

페인트칠

동티모르 아띠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센터의 외부 벽은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4년 전 동티모르에서 열린 평화캠프 때 칠한 벽화라 그 시간을 담아내듯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손상이 많이 되었었죠.

센터에 온지 한 달이 좀 더 지났을 때, 예림 간사님으로부터 센터에 페인트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페인트칠은 총 이틀에 걸쳐서 첫날은 외부 벽에 노란색으로, 처마랑 기둥부분과 사무실은 하얀색으로, 이튿날은 축구부 교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사무실 내부 정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들 페인트칠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붓질을 했지만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는 일본 캐릭터인 고양이 '포포키'가 칠해져 있었는데 페인트로 지울 때 마다 왠지 모를 미안함과 잘 지워지지 않아서 미운 감정이 합쳐져서 꿈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준기 단원은 롤러로 벽을 너무 열심히 칠한 나머지 얼굴이 페인트로 범벅이 되기도 했었고, 하얗게 칠한 사무실 안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해 단원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고도 했었습니다. 천장을 칠할 때는 흔들거리는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흔들흔들 스릴 있게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붕쿠스)을 사다가 맨바닥에 제각각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니 노동자 같기도 한 우리 모습에 웃음이 났었습니다. 옷에 페인트가 튈까봐 모두 어디서는 절대 못 입을 옷들로만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길로 센터에 새로운 색깔이 입혀졌습니다. 예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깔끔해진 외관을 보니 센터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페인트칠 하나만으로 어두침침했던 사무실도, 축구부 교실로 들어가는 복도도 환해졌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모습으로 다가오다니 페인트칠을 한 아띠들도 놀라웠습니다. 비록 어깨는 조금 쑤시지만 이런 변화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즐거웠던 페인트칠이었습니다.

- 글쓴이 : Nat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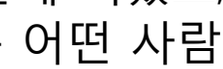
고름 하나가... 터졌어요

국내 NGO 인턴쉽을 했던 여수에서부터 우리 동티모르 팀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자는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동티모르에 와서도, 지금 돌아다보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아니면 회의할 때, 자기 속 얘기 또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팀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깊은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마음 속에 응어리가 조금씩 쌓여 생긴 고름이 결국 한 팀원을 통해 터졌습니다.

우리는 그간 부족했던 소통이 문제였음을 느끼며, 늦은 밤 서로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팀원은 나름대로 다른 팀원들에게 자기 생각을 열심히, 강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다른 팀원들은 그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는 그 생각들을 듣고 각자 떠오르는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서로가 오랜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팀의 고름 하나를 알게 되었고, 그 고름을 터뜨려 준 팀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 Afonso

센터 주변에는 OOO이 있다?

맨 처음 센터에 갔던 날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얕으막한 산 꼭대기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임시로 세워놓은 듯한 작은 집 같은 것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몇 군데에 십자가가 꽂혀 있는 것도 있었지요. 그게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하루는 스태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곳에 묻고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띠 끌라쎄를 홍보하면서 센터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센터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센터 건물 바로 뒤편에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높이 정도 되는 십자가가 놓여 있고 머플러 같이 생긴 따이스(tais)가 걸려있습니다. 이 따이스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짜서 만든 동티모르 전통 천입니다. 우리나라의 베틀과 비슷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 따이스를 만듭니다. 이것으로 천을 만들거나 다양한 용도와 크기의 가방이나 큰 지갑, 동전 지갑, 머리 끈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딜리에는 따이스 마켓(Tais Market)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작은 시장에는 따이스를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십자가는 나무 기둥 두 개로 만들어졌고, 'CRUZ JOVEM(Youth Cross)'이라는 포르투갈 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는 양초 하나와 접시가 놓여져 있고, 천장과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천장에는 하늘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벽에는 예수님이 양들과 함께 어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CRUZ JOVEM'을 지나가면서 따이스(tais)에 입을 맞추고 성호를 긋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센터에 갈 때는 미크롤렛이라는 작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흰색 10번 미크롤렛을 타고 가는데, 이 미크롤렛의 종점은 'TASI TOLU(세 개의 바다)'입니다. 이 동네 근처에는 바다가 세 군데가 있어, 이름이 'TASI TOLU'입니다. 'TASI TOLU'는 센터 바로 옆 동네 이름인데, 이곳은 버스터미널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주변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튀김 집이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아침밥 대신에 이 튀김 몇 개를 먹기도 합니다. 하루는 센터에 온 한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길래, 그 아이와 함께 그 튀김집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튀김 종류는 두부 튀김, 바나나 튀김, 채소 튀김이 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만하고, 가격은 하나에 10센트 입니다. 한국과 물가가 비슷한 동티모르에서 이 정도 가격이어서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많이 먹기에는 튀김이라 살짝 부담스럽고 , 두세 개 정도 먹으면 허기는 달랠 수 있습니다. 맛도 좋은데다, 가격까지 엄청 저렴해서 우리는 그 튀김집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우리는 딜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종종 잊고 삽니다. 하루는 센터 스태프들께서 우리에게 센터 앞에 있는 바닷가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바로 좋다고 하고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다로 가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보았고, 마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0분쯤 걸었을 때, 눈 앞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때 또 한 번 우리는 딜리가 해안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사진도 찍으며 놀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센터를 보았을 때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센터 주변에 소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지내면서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될 지 참 기대가 됩니다.

- 글쓴이 : Afonso

안녕 커피

커피 수확시즌인 8월을 지나 10월에 들어선 커피는 수출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을 모두 마치고 공장에서 가공과정만 남은 커피들은 아띠들이 사는 숙소를 점령하였습니다. 점령이란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게 적당하다 느낄 정도로 커피는 숙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사메(Same : 커피 수확 지역)에서 열 두 분의 아저씨들이 내려오셔서 1주일간 숙소에 머물면서 커피 가공장과 숙소를 오가며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커피자루들을 숙소에 놓기 위해서 아띠들은 방을 옮기고, 그 방과 거실은 커피 자루로 가득했습니다. 커피포대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커피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아띠들과 간사님들만 있었던 숙소에 12명이 갑자기 늘어 북적북적했지만, 부부지런한 아저씨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게으른 아띠들과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가시고야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해 아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짧게 나눈 대화로 아쉽지만 나이가 훨씬 어린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들이 돌아가시지 이틀 전, 한밤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잠자기 직전에 일어난 정전으로 아띠들과 아저씨들은 앞마당으로 나와 더위를 식혔습니다. 마을 모두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아저씨들과 동티모르의 문화, 라온아띠 1기 사메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저씨들과 아침인사를 나누다가 떼뚠어를 잘 몰라서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Maun : Ita matabixu ona ka?

Natalia : Lae. Hau nia naran la matabixu.

Hau nia naran Natalia.

Maun : huh, huh

아침을 먹었냐고 물어보신 물음에 저는 아직 matabixu란 단어를 몰라 제 이름을 물어보는 줄 알고 '제이름은 아침밥이 아니에요. 저는 나탈리아에요'라고 답한 것 입니다. 나중에 그 단어를 알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침밥이란 단어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커피는 숙소에서 트럭으로, 또 트럭에서 숙소로 그 많은 커피자루들을 모두 손수 하나씩 옮겨 수출할 수 있는 커피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커피는 커피를 따는 과정부터 가공하는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그만큼 손길이 많이 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커피였던 것입니다. 공장에서 가공을 다 마친 커피를 컨테이너로 싣는 과정까지 끝나고 나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아저씨들은 사메로 다시 돌아가시고, 커피는 컨테이너에 실려 올해는 총 32톤의 커피가 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커피는 동티모르의 태양을 간직한 진한 향기로 사람들의 커피잔에 담길 것 입니다. 우리는 그 커피가 단순한 커피 한잔이 아니라는 것을 동티모르에서 알고 가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 : Natalia

척박한 동티모르에서 돋아나는 예술가들의 열정

중고 옷 시장을 찾아갔던 그날 우리는 우연히 Arte Moris를 발견 했다. 1달러, 2달러면 티셔츠 한 벌, 바지 하나를 살 수 있는 중고시장 뒤편에 조용히 Arte Moris는 그렇게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티모르 기행 서적에서 우연히 지나가며 봐서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던 지라 Arte Moris를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왠지 반가웠다.

Arte Moris에 들어가자 미술관에 계시던 한 분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 그 분은 실제로Arte Moris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이시면서 주말에는 방문객들에게 미술관을 소개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분의 설명과 함께 미술관과 주변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Arte Moris는 티모르에서 유일한 예술가 타운이라고 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어떤 단체나 NGO의 후원도 받지 않고 Arte Moris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운영되고 있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공교육에서 미술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 쪽에서 계속...

그나마 처음으로 미술수업을 하는 시점이 고등학교인데, 그 때 조차도 미술은 수업에서 거의 비중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Arte Moris를 방문하는 다른 국가의 예술가들에게 배워 자신들만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은 동티모르에서 미술교육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다. 수학이나 언어, 과학만큼이나 미술도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말이다. 그래서Arte Moris에서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미술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그 분도 우연히 자신의 마을을 찾아온 뉴질랜드의 예술가 덕분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동네 곳곳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보고 그 솜씨가 너무도 놀라워 마을에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직접 예술을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자신도 그 중 한 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동티모르에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술가에게 척박해 보이는 동티모르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집단을 이뤄 활동을 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왠지 응원하고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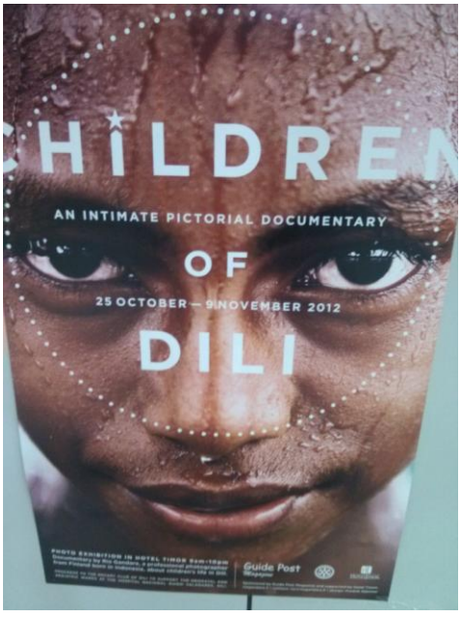
Arte Moris의 작품들은 그림, 조각, 꼴라쥬, 전시품 등으로 다양했다. 티모르의 자연환경을 그린 작품들도 있었지만, 많은 작품들이 티모르의 독립, 티모르의 전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티모르의 독립과 사회환경에 대한 작품이 특히 많이 기억에 남는데, 독립한지 10년 남짓 된 신생국가인 동티모르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었고, 또한 독립의 이면에 가려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원하는 혹은 원하지 않는 동티모르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많은 작품들은 동티모르의 아름다운 미래, 밝은 면을 나타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 갤러리와Arte Moris를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직접 그린 엽서를 몇 장 샀다.

- 글쓴이 : Gomez

우리가 살고 있는
딜리의 소소한 많은 이야기들

문화생활이라곤 거의 없는 티모르에서 사진전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보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미크롤렛을 타고 10분 정도 걸리는 호텔 티모르 로비에서 무료로 열리고 있었다. 직접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다. 사진의 주제는 'Children of Dili'. 우리가 살고 있는 딜리 주변의 아이들을 사진으로 담아 놓았다.

사진은 전반적으로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했다. 사진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의 다양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치는 거리, 우리가 출근하는 센터와 멀지 않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많았는데 조금 더 주변을 관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조금 다른,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사진전의 사진들처럼 나도 다채로운 기억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나도 사진을 좀 더 열심히 찍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다. 내가 살고 있는 딜리, 내가 매일같이 지나치는 거리들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조금 더 카메라를 들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아름답게 담아보고 싶어졌다.

- 글쓴이 : Gomez

언제나 Hot Hot 미크롤렛(microlet)!!

동티모르에는 한국에서 흔하디 흔한 버스가 없다. 하지만 이곳 동티모르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교통수단이 있다. 바로 미크롤렛!!! 미크롤렛은 자동차나 트럭 엔진을 개조해 만든 차로 동티모르의 가장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기사님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티커와 페인팅으로 꾸며져 있다. 티모르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띠들은 하루에 최소한 네 번씩 이 미크롤렛을 탄다.

교통비는 거리에 상관없이 한 번에 무조건 25센트! 한국에서 내가 살던 곳의 버스비가 1200원인 점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10센트, 어린이의 경우는 공짜다. 그래서 미크롤렛 기사들은 웬만해서는 어린아이들을 태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리만 차지하고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ㅠ.ㅠ

이곳에 와서 미크롤렛을 처음 탔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정말 작다!'였다. 미크롤렛은 정말 작다. 얼핏 보기엔 10명도 타기에 좁아 보인다. 하나뿐인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 줄로 마주보고 앉아있다.

다음 쪽에서 계속...

천장도 낮아 나는 미크롤렛에서 허리를 펴고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미크롤렛 마다 조금씩 크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조금 작은 미크롤렛은 마주앉으면 앞사람의 무릎이 닿고, 고개를 푹 숙여야 한다. 미크롤렛의 가장 명당자리는 조수석이다. 조수석에 앉으면 뒤의 복잡하고 답답함과는 조금 떨어져 약간의 쾌적함 마저 느낄 수 있다.

미크롤렛을 타고 가는 방법에는 앉아서 가기와 매달려 가기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앉아서 가는 경우는 일반 자리에 앉거나, 조수석에 앉거나, 문간에 앉아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자리가 없는 경우나 미크롤렛이 답답할 경우 미크롤렛의 문간에 매달려 갈 수 있다. 여자들은 위험해서 매달려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큰 탓에 자리가 없거나 거의 꽉 찼을 때 자주 매달려 간다. 10분 이상 매달려 가다 보면 팔이 아프기도 하다.

미크롤렛에서는 자주 가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미크롤렛에서 쉴새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덕분이다. 두 줄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미크롤렛의 자리 밑에는 거의 100% 엄청난 우퍼를 가진 스피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쪽에서 계속...

기사님들의 취향에 따른 음악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HOT한 클럽음악, 일렉트로닉 음악을 주로 듣는데, 소리가 아주 거침없다. 볼륨이 너무 커서 우퍼가 가슴을 울리고 음악이 귀를 쉴 새 없이 자극한다. 때론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후끈한 티모르의 열기와 엉덩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비트, 딱 붙어있는 옆사람의 땀냄새 덕분에 토요일 밤의 뜨거운 클럽에 온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기사님들의 취향에 따라 트로트, 세계각국의 가요가 들리기도 한다. 가~~~~끔 정말 가~~끔은 조용한 미크롤렛을 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 글쓴이 : Gomez

들쑥날쑥 티모르 물가!!!!

동티모르는 올해로 독립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GDP가 600달러이다.

티모르에는 UNPOL과 NGO활동가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수도인 DILI에서 소비되는 달러의 70-80%가 이러한 외국인들에 의한 것이다.

DILI에 소재한 큰 마켓 4곳 모두가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상권침해가 심각하며, 공산품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못하는 달에는 물가 대폭 상승한다. 또 평소에도 같은 제품이 각 마켓에 따라서 1~4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가도 한다.

큰 시장의 경우 식재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거리와 안전상의 문제로 거의 이용하지 못 하고 주로 리어카상점과 마켓, 작은 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글쓴이 : Dona

머리 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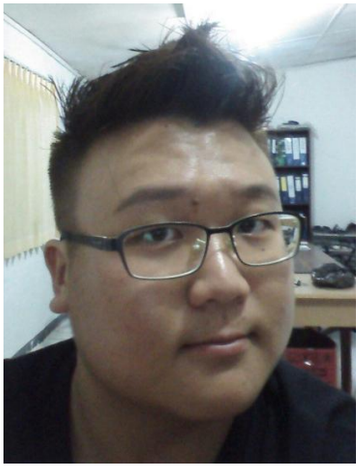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Afonso, Dona, Gomez는 이날 염색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 염색을 하지 않는 Natalia까지 모여 다같이 일렬로 죽 앉았습니다. 먼저 Natalia가 Dona의 머리를 염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Dona는 Afonso의 머리를, Afonso의 순서가 끝난 다음엔 Gomez의 머리를 염색해 주었습니다. 염색을 하는 세 사람은 그 전에 우선 어깨에 큰 비닐봉지를 두르고 나서 담당자에게 머리를 맡겼습니다. Gomez와 Afonso는 돌아가면서 염색 받는 사람의 귀나 이마 등에 묻은 염색약을 열심히 닦아주며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Gomez는 한국에 있을 때 사회를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머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편 Afonso는 한국에서 파마는 해봤지만, 염색은 자신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염색을 한국이 아닌 이곳, 동티모르에 와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ona는 한국에서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은 머리가 많이 자라 아예 원래의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

머리에 염색약을 모두 바르고 나서 그들 셋은 다같이 사이 좋게 머리에 비닐봉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특히 Gomez는 머리에 비닐봉지를 두른 모습이 마치 고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풍만한 미인상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Gomez의 모습을 보며 잠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색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네 사람은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닐은 머리에 쓰고, 안경은 얼굴에 걸친 채로.

약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머리를 감고 나타났습니다. 처음 염색을 해봤다는 Afonso가 조금 어색해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 대체로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중국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더욱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약간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우려 속에서 이 날 하루를 재미있게 끝마쳤습니다.



P.S Gomez는 다음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미용실에 있었던 손님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니, Gomez의 머리가 완성된 걸 보시고 나서 마치 한국의 아이돌 가수 같다고 하셨습니다.

글쓴이 : Afonso

다가오는 우기와 정전~

티모르는 1년 365일 더운 나라로 11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이다. 우리가 도착했던 9월 초에는 덥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면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습해지고 있다. 덥다……

지역훈련을 받았던 해양도시 여수만큼이나 습해서 10월 중순부터는 매일 타일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습해질 예정이다.

티모르 생활을 시작하고 구경한 비는 3번 모두 무섭게 1~3시간 쏟아지고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해졌다. 그 중 한번은 센터에서 비 맞고 운동하는 파릇파릇 축구부를 구경했고, 두 번은 집에서 맞이하였는데, 비가 오는 날 씻다가 화장실에서 정전을 겪는 적도 있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 보다 의연하게 대처를 했다.-B-;; 물이 끊어지기 전 후다닥 씻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에 샴푸를 하고 정전이 되었으면 더 끔찍했을 것 같다.

- 글쓴이 : Dona

도나의 10월 이야기

내가 주체가 되어 주 1회기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고, 어린 아이들과 세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질적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주를 이룬다. 어떻게 하면 한정 된 자원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매일 출근해서 아이들과 복작복작 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아띠 교실이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보안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순간들이 재미있다.

또 소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본다. 5개월 동안 티모르에서 사용할 용돈이 800달러인데 자주 가는 도시락 집 언니의 한 달 월급이 60달러…… 나는 60달러로 생활할 수 있을까?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등의 생각들이 떠오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딜레마를 잊지 않고 한국에서도 되새기고 싶다는 것이다.

덧붙여 우기 시작되려고 티모르가 더워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며 타일바닥을 뒹굴뒹굴~ 진정 우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다.

또 티모르에서는 닭, 소, 돼지, 염소 등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한국에서는 고기를 내 돈 주고 사먹어 본 적 없던 나는 음식에 대한 적응이 힘들다. 2달이 지나가는 지금도 고기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서 10월에 가장 즐거운 일은 저번 달 보다 식단에 많은 채소들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글쓴이 : Dona

내가 이렇게 모자라요~

9월에 느꼈던 주된 생각은 '행복하다'와 '고맙다'이었다면, 10월에 느꼈던 주된 생각은 '내가 많이 부족하다'이었어요. 10월 들어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다니고 있는 센터 생활에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생각하고 나니까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에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인상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지요. 이렇게 웃음은 땅바닥에 내던져놓고 진행을 하니, 당연히 아이들 표정도 좋을 수만은 없었지요.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즐겁게, 놀이를 하는 것처럼 진행하자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놀이 무슨... 저는 알려주고 아이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준 대로 따라와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뿐만 아니라 제가 라온아띠로 티모르에 온 목적은 이곳 사람들과 친구처럼 서로 장난도 치고 웃고 울고 싸우면서 감정을 교류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들 하고만 친구가 되어 있더군요.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있는 데도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 기회를 차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최대한 마음에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려고 해요.

다음 쪽에서 계속...

그리고 제게 장난만 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이들도 다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일부러 제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냥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

10월에는 9월과 비교하면 팀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팀원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은 것은 보고 어떻게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또 말하는 방식은 어떤지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고 나면, 어떻게 하면 팀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해요. 서로 생각 하는 것이 달라서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 조절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마저도 참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에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세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센터 친구들 그리고 팀원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글쓴이 : Afonso

10월의 마음 - 창숙

매일 센터로 가면 교실 청소로 시작되는 하루.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 전에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는 나날들인 것 같다.

그리고 활동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는 한 달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내 방식과의 차이를 보면서 더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 어느 때 보다 내 자신과 우리 팀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

하루가 다르게 빨리 흘러가는 동티모르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혹시 내가 초심을 잃고 그저 순응해 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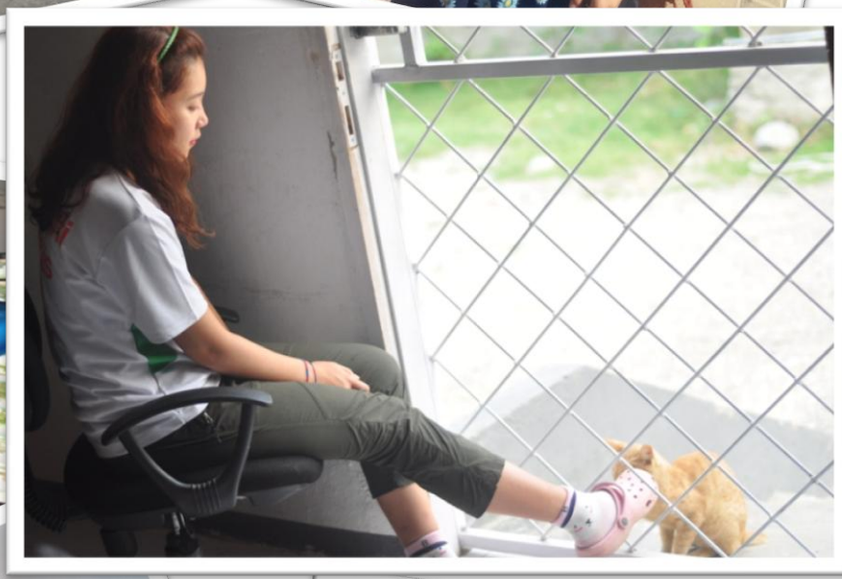
- 글쓴이 : Natalia

함께 한다는 것?

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한 달이다. 여기에 와서야 지난날의 내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할 수 있었던 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거라 스스로 믿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마다 주춤거리고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불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활동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약을 주고 말았다. 솔직해 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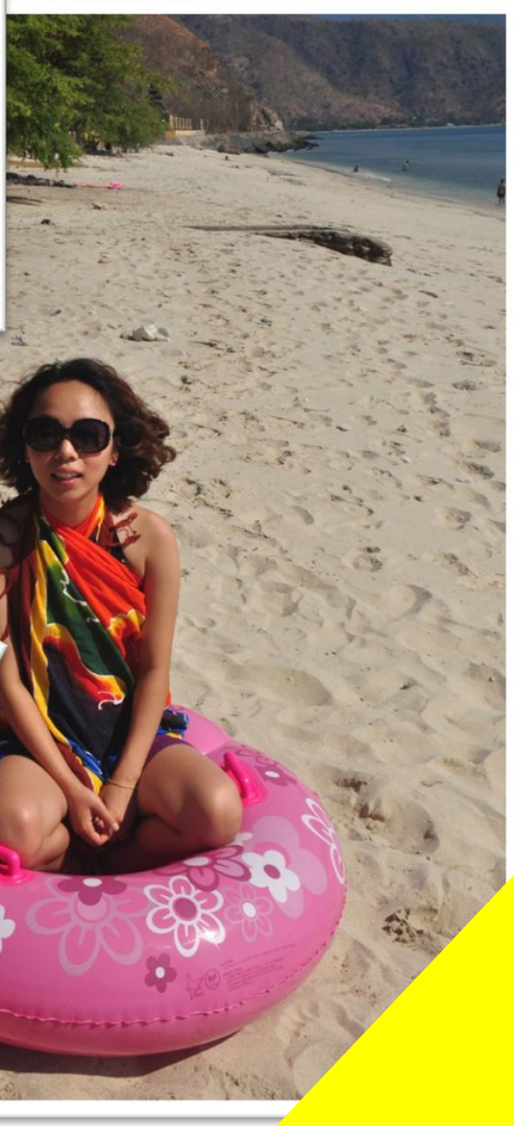
이번 달은 그런 나를 바꿔가는 달이었던 것 같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 더 솔직해 졌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해준 소중한 말 들을 마음에 하나 하나 새기고 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귀로 듣는 것 보다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을 것, 혼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멋대로 판단하지 말 것.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이 해준 말이면서 항상 되새기고 있는 말이다. 라온아띠는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정말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라온아띠의 시간을 통해 그 거리를 좁혀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겨우 세 달 남짓. 돌아봤을 때 정말 행복하고 뜨거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가는 센터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글쓴이 : Gom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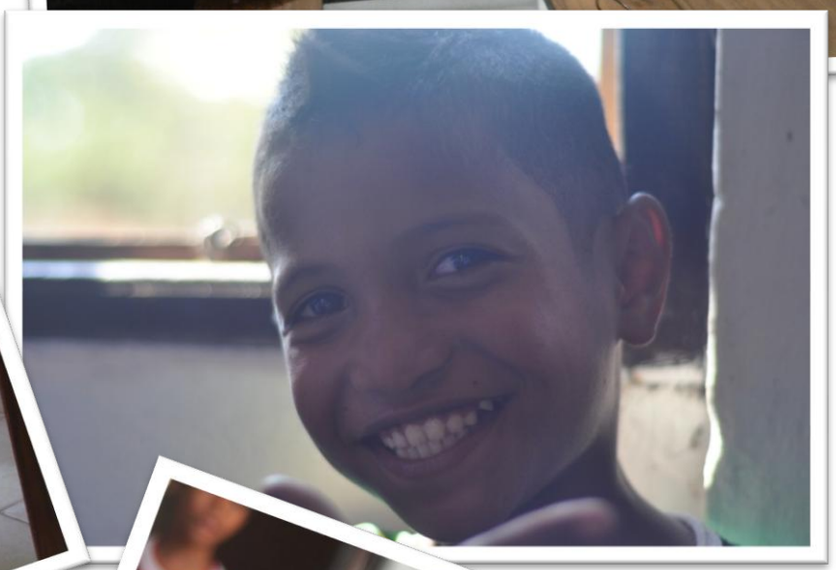
YMCA
羅宇魔那

YMCA
We build strong kids,
strong Families,
strong communities.
Peace Coffee



BEM VINDO - WELCOME

baktéria!



Timor-Leste

Timor-Leste

WE COME
IN PEACE

WARN

adidas
14